

담양군, 문화·생태관광 강화... '내륙관광 1번지' 도약

3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콘텐츠 발굴 대나무·산타축제 등 체류형축제 전환 장 담그기 문화 활용 관광상품 개발 '남도 미향' 지역 음식문화 집중 조성

담양군이 변화하는 관광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을 강화해 내륙관광 1번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담양군은 3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문화·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10일 밝혔다.

지역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와 산타축제는 특색 있는 콘텐츠로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죽녹원 일대에 야간 경관을 조성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올해는 5월9일부터 5일간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개최한다.

산타축제는 화려한 경관과 축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겨울 경험을 방문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중앙로가 조성된 이래 처음으로 밤까지 관광객이 넘치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는 담양시장 주변 만성교까지 축제 장소를 확대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지역 특색을 살린 '1면 1축제'를 발굴·개최해 주민소득 창출과 생활인구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생활 인구는 지난해 2분기 기준 41만9946명을 기록하며 전남도 16개 인구 소멸 지역 중 1위를 차지했다.

담양군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활용한 장류미식벨트 투어와 외국인과 어린이, 관광 약자를 아우르는 '사운드워킹 청각여행'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객의 즐거움을 더한다.

여기에 '한국관광100선', '로컬 100', '아름다운 도시 숲 50선'에 선정된 죽녹원과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랜드 등 대표 관광지에는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야행 관광 공간을 조성한다. 담스테이와 담빛아트창고, 메타세쿼이아랜드 음악분수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담양의 밤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담양군은 치유 관광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명상센터 건립과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기반으로 인문학과 정원산업이 중심이 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담양호권 생태 탐방로를 확대하고 담양하천 습지 보호지역과 금성산 생태습지의 복원 사업을 추진해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남도미향'으로 알려진 담양군 명성에 맞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시설 개선과 음식관광 해설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담양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3000만 관광객이 찾는 내륙관광 1번지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시내버스 시민 평가단 모집 나주시, 성인 25명·학생 25명

나주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대중교통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번 시민평가단은 성인 25명, 중·고등 학생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제외된다. 시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나주시 누리집(www.na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시민평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2개 운수업체(나주교통·나라교통)가 운영하는 63개 노선(가지노선 포함)에 직접 승차해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버스 운행 △전철 서비스 △시설 △이용 편의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는 평가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 최대 6회까지 실비를 지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범 운수종사자를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평가 결과는 운수업체와 공유해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대중교통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며 "버스 불편절과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생 모집 영광군, 12명 대상... 17일까지

영광군은 정원교육에 관심 있는 군민을 위해 '2025년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광 군민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초과정 60시간(이론 20·실습 40시간)을 마친 교육 수료자는 정원관리사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1인당 85만원으로, 이 중 75만원을 지원하며 교육생 자부담금은 10만원이다.

교육은 올해 하반기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매주 1회 주말에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정원식물의 이해, 관리, 조성 방법, 운영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정원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담양군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기존 200원이 부과되던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4개 분야 119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가장 많다.

이에 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담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들께서 소소하나마 발급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총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해 운용 중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2025년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영광군, 21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2025년 영광 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영광 여성대학은 오는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결,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등 여성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관내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교육팀으로 전화(061-350-4705)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나주시민들이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해 의존도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맞춤형 금연 클리닉 '호응'

나주시가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금연 클리닉은 단순한 금연 캠페인을 넘어 6개월간의 정기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니코틴 의존도 평가, 행동요법 지도, 금연 보조제 무료 제공을 통해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금연에 성공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하며 동기 부여에 나서고 있다.

특히 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

인과 학생들을 위해 기업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나주시는 효과적인 금연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금연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한가람내과의원, 박용선내과의원 등 지역 내 13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nh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8~12주 동안 총 6회의 상담과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차부터는 본인 부담

금 없이 무료 지원된다. 6회의 치료를 모두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금연을 시도할 수 있다.

지난해 금연 클리닉에 참여한 637명의 시민 중 510명이 5회 이상 상담을 받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금연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금연은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올바른 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나주시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함평군, 의료취약지역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진

함평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드림 특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함평군은 함께하는 마을 건강드림 특화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돼 함평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20곳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군은 함께하는 마을건강드림 특화사

업에 예산 3000여만원을 투입, 노년층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드림 특화사업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가까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보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3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는 내·외부 강사를 초청

해 만성질환 관리·신체활동·웃음치료·노래교실 및 인지 향상을 위한 공예·원예·미술치료, 보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상의 함평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